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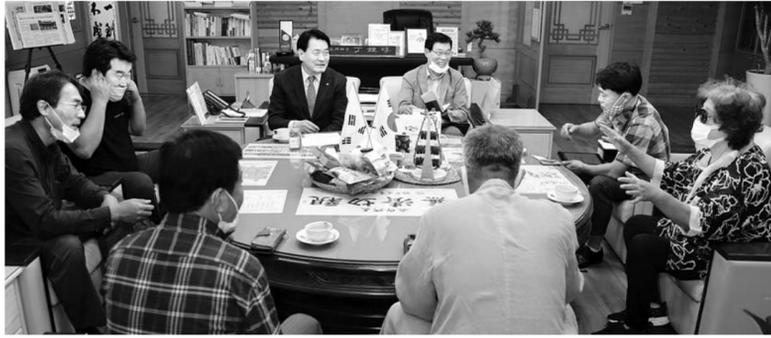
“아마존 뚝자” 지자체들 고군분투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 경쟁 접화

고흥군, 유자·석류 등 가공품 입점
2년내 100만달러 달성 목표

보성군, 녹차·키위 등 수출 급증
소비자 맞춤 가루녹차 용량 다양화

장흥군, 바이어 초청 수출확대 협의



장흥군이 최근 아마존 관계자를 초청해 장흥특산물의 수출 확대 등을 논의했다.

고흥·보성·장흥 등 전남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 경쟁이 뜨겁다. 세계 온라인 시장 1위인 ‘아마존’을 뚫기 위한 경쟁이다.

아마존은 2018년 이후 2년 연속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다. 미국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기업 가치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 특산물 ‘아마존’ 입점... 2년내 100만달러 매출 올린다

고흥 농수특산물물이 세계 최대 온라인 마켓인 아마존에 입점한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30일 아마존 판매 대행업체인 크리에이티브(Kreassive LLC)와 업무 협약을 했다. 고흥군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11번가와 우체국쇼핑 등 국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아마존에 특산물을 입점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고흥군과 크리에이티브는 아마존 내 전남도 브랜드관에 ‘고흥 유자’를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석류와 수산물, 귀리 가공품 등을 선보인다.

협약에 따라 미국 내 원활한 판매를 위해 홍보와 입점 기업 상담을 도와 2년 이내에 100만달러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전남 보성지역 농·특산물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보성 농수특산물 수출 ‘경풍’...전년비 2배
올해 상반기 보성 농수특산물 수출이 부쩍 늘었다.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특산물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12% 급성장했다.

총 수출액은 22억3000만원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키위·와파로(12억원), 보성 차(6억1000만원), 꼬막(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출국은 미국·캐나다 등 미주와 일본, 동남아시아 등이다.

상반기 수출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보성차다. 아마존이 1등 공신이다.

보성군은 지난 4월 미국과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새로운 차 브랜드 ‘오션브리즈’(ocean breeze)를 개발하고 아마존 등 글로벌 차 시장에 뛰어들어 가루차 부분 신제품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10월에는 아마존으로 가는 2차 선적(3억5000만원 상당)이 예정돼 있다.



보성군이 미국·유럽 소비자들을 겨냥한 차브랜드 ‘오션브리즈’의 아마존 입점에 따라 보성차 상차식을 했다.



고흥군이 지난달 30일 아마존 판매 대행업체인 크리에이티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해 가루녹차 용량 다양화와 큰사이즈의 잎차 개발도 진행중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 특산품의 입지와 경쟁력을 높여준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적극 지원·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입점 늘리자” 장흥군 수출 확대 협의

장흥군도 최근 아마존 관계자와 수출 확대 협의를 진행했다. 수출 확대 협의는 아마존 쇼핑물 내 전남도 브랜드관 개설 및 마케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 농수특산물 수출 확대 및 업체 역량 제고를 위해 장흥군이

미국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아마존에는 지난해 장흥군 최초로 입점한 장흥식품의 청국장·된장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수출 확대 협의를 통해 지역 농수특산물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쇼핑 물에 보다 많은 지역 업체들이 입점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주각중·김용백·김용기 기자

여수산단 기업, 지역 인재 채용률 58%

7곳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협약’...남해화학 신입사원 63% 뽑아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여수 시민 채용률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7년 9월 여수시는 GS칼텍스를 시작으로 여수산단 입주 기업과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여수시민 가점제에 협약한 기업은 남해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파인비화학, 금호플리켈 등 모두 7개 기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이들 기업이 채용한 인원은 464명이었으며, 이 중 여수시민은 269명(58%)에 달했다.

최근에는 남해화학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11명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7명을 지역 인재로 뽑았다.

남해화학은 지금까지 채용인원 54명 중 63%에 달하는 34명을 여수지역 인재로 선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협약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을 주고 있다”며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광양항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다음달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0.1% 초과 사용 금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1일부터 여수항·광양항 내에서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은 선박이 접안하거나 정박 중에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주로 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며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25

되면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 알려졌다.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 금지는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한다고 여수해수청은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2022년부터 여수항·광양항 내를 비롯해 항내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 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준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보성녹차 30개 제품 군수가 품질 보증

25개 업체 심의 통과

보성녹차 30개 제품이 군수 품질인증을 받았다.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북재 2층 북재실에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열어 지역 차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30개 제품에 대해 엄격한 품질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 중 25개 업체 30개 제품이 군수 품질인증을 받았다.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사는 전문가 10명이 진행했다. 차의 외형·차물색·향·맛·우려 내 잎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오감(五感)을 통한 관능 평가를 시행했다.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획득해야 심의를 통과하며, 품질인증서를 받는다. 인증 상

품은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2년 차를 맞은 군수 품질인증제는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성녹차의 안전한 품질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위원장인 최병만 보성부군수는 “품질 좋은 명품 녹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후 품질관리와 기술 개발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작명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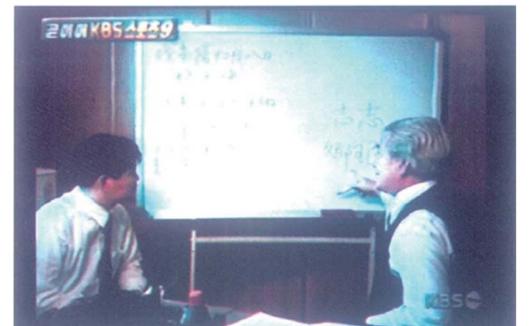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 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